

榮州石浦里四面佛石

秦弘燮

우리나라 歷史의 研究가 發展하고, 國民의 國史에 對한 自覺과 知識이 向上 普及됨에 따라 考古·美術方面에 對한 關心이 自然히 增大되어가고 있는 것은 慶賀할 일이다. 特히 六·二五動亂以後에는 各地에서 偶然的인 發見品·出土品이 많아질 뿐 아니라 機關이나 個人의 研究活動이 活潑해짐에 따라 새로운 重要한 發見이 많았다. 그러나 一部에서는 故意的인 盜掘이 盛行하여 遺蹟이 破壞되는 것은 姑捨하고 거기서 發見되는 重要한 美術品이 市中에 흘러나와 結局에 가서는 國外로까지 不法流出하게 되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學術的 資料가 遺蹟과 分離되어 實質的으로 永遠히 破壞·湮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痛嘆할 일이라 하겠다.

이 考古美術은 몇몇 同人이 모여 其時 其時 過眼하는 如斯한 資料는 勿論 새로 發見 出世하는 遺蹟·遺物들을 簡單한 메모로써 記錄에 남겨 두어 現在는 勿論 將次이 方面 研究의 資料로 保存하려는 것이다. 우리들의 이와같은 뜻이 널리 同感을 얻어 將次는 이 月刊資料誌가 油印에서 活印으로 pamphlet에서 完全한 月刊誌로 發展해 나가게 될 것을 바라다지 않는 바이다.

考古美術同人會

慶尙北道 榮州에서 榮岩線으로, 文丹驛에서 下車하여 南으로 約 五里 가면 伊山面 石浦里 彌勒堂部落이 있고 이 部落 南쪽 右側 언덕 밑은 가운데 조그마한 岩石이 突出하였다. 이 岩石 四面에 佛像이 彫刻되었으니, 南面에는 三尊像을, 다른 三面에는 獨尊像을 各各 陽刻하였다. 岩石 後面 언덕 위는 多少의 起伏이 있기는 하나 小利이 있었을 만 한 데 지금은 아무 痕跡도 찾아 볼 수 없다.

岩石의 南面을 除外한 다른 三面의 彫刻은 모두 磨滅과 剔抉이 甚하며 特히 北面은 若干 손을 댔을 뿐 形態를 이루지 못한 점으로 보아 未完成이 아닌가 한다. 西面은 刻像 前面이 全部 剔抉되어 結跏趺한 如來像의 輪廓과 臺座의 蓮瓣이 若干 남아 있을 뿐이며, 東面의 一像은 頭部와 身部를 區別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彫刻들은 이미 그 造型價値를 喪失하였으나 南面만은 比較的 잘 남아 있어서 新羅時代 磨崖石佛의 高古한 一例를 보여주고 있다.

岩石 南面의 넓이는 약 二·二m이고, 높이는 밑이 문혀서 알 수 없으나 약 三m로 추측된다. 이 岩石 全面에 三尊佛像을 陽刻하였으니 비록 全面이 磨損되고 特히 三尊 共히 眼孔이 깊어 파지기는 했으나 整齊된 容姿를 알아 볼 수 있다. 언저리 인지는 알 수 없으나 全面에 胡粉을 塗裝하였던 痕跡이 處處에 남아 있어 彫刻의 細部를 볼 수 없는 部分이 있음은 또한 遺憾이다.

本尊은 通肩 結跏趺한 坐像으로 頭部는 거의 圓刻에 가깝다. 머리는 削髮하였고 肉髻은 매우 크다. 顔面은 比較的 긴 편이며 白毫는 없다. 두 귀는 길게 어깨까지 늘어졌고 입에는 胡粉이 아직 남아 있어 잘 알아 볼 수 없으나 微笑가 있는 듯 마는 듯하다. 목에는 三道가 있으며 두 손



은 磨滅이 甚하나
左手는 與願印、
右手는 施無畏의
通印인 듯하다.
무릎밑은 埋沒되
어 座台의 有無
를 알 수 없고 背
光은 頭光만 表
示되어 雄健한 火
炎文을 寶珠形으
로 나타냈다. 通
肩한 法衣는 두
손을 거쳐 무릎
을 덮었고 胸前에
는 袈衣의 帶紐
가 보인다. 相容이

溫和한 가운데도 全體에서 端嚴한 氣風을 느끼게 한다. 衣紋은 똑똑치
않으나 寫實的인 表現을 짐작할 수 있다.

右脇侍菩薩은 正面 直立하였으며 머리에는 三面花冠을 썼고 前面에 무
슨 彫刻이 있는 듯하나 識別할 수 없다. 面相은 亦是 길고 兩眼孔이 파
진 것이 보일 뿐 細部를 觀察하기 힘들만큼 磨滅되었으나 寶髮이 길게 느
러져 어깨를 덮은 것이 보인다. 두 손은 가슴 앞에 모아서 合掌하였고,
두 팔을 거쳐 내린 天衣가 길게 느러졌다. 몸에는 莊嚴具가 거의 없는
듯 목걸이와 팔지가 희미하게 보일 뿐이다. 무릎 以下는 埋沒되어 褶襞
이나 台座를 볼 수 없음은 遺憾이다. 머리에는 本尊과 同一한 手法의 頭
光이 있다.

左脇侍菩薩은 亦是 正面 直立的의 像으로 같은 形式의 頭光이 있고 다
른 二像보다는 豐頰한 面相이다. 머리에는 높은 三面花冠을 쓰고 있으
나 前面이 破損되었다. 兩眼孔은 亦是 길고 파졌으나 멀어진 鼻端아래

로 所謂 仰月形 口唇이 보인다. 두 어깨 위에는 寶髮이 길게 늘어져서 끝
은 花瓣 모양을 이루었다. 比較的 두꺼운 天衣가 두 어깨에서부터 두 팔
을 거쳐 腹前에서 U字形으로 늘어졌고 兩端은 옆으로 길게 흘렀다. 右
手는 側面에 느러뜨렸고 左手는 臍前에서 무엇인가 잡고 있는 듯하다.
몸에는 아무 裝身具가 없어 매우 素朴한 感覺을 준다. 身部에 比하여 比較
의 큰 머리나 좁은 어깨에서 古拙한 風을 느낄 수 있다.

岩石 四面에 佛像을 彫刻하는 例는 慶州 掘佛寺址 四面佛石을 爲始하
여 數例가 있고, 三尊의 形式을 坐像인 本尊에 對하여 脇侍補處의 菩薩
을 立像으로 表現하는 例는 흔히 있는 形式이다. 다만 지금 그 尊名을
定하기 어려우니 本尊이나 脇侍菩薩에서 尊名을 定할만한 特徵을 發見
할 수 없는 까닭이다.

以上 三尊은 그 造像形式이나 三尊의 肢體 或은 手印이 同郡內에 所
在한 可興里 磨崖 三尊像과 恰似하다. 그러나 細部의 彫刻手法이나 모
델링은 그보다 古態를 띠었으며 特別히 頭光形式은 그와 同時에 論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三尊佛像의 造成年代를 七世紀以下로
떨어뜨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埋沒된 部分의 發掘과 處處에 附着
된 胡粉을 除去하면 좀 더 詳細한 部分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高麗銀入絲青銅佛器의 新例

黃 壽 永

金屬器에 入絲(象嵌)한 遺品은 高麗의 淨瓶 香爐 등에서 보는 바인데,
이곳에 紹介하려는 新例는 일찌기 보지 못한 것으로 銀入絲의 手法이 優
雅할 뿐 아니라 器體周圍에 詩句가 入絲되고 器台에는 記銘이 있어 所屬
寺觀을 推定케 함이 있다.

二

形態는 大碗形 ①으로서 青銅製인 바, 넓은 圓形底部에는 器體에 比하
여 低小한 금이 달려 있다. 烏銅이라고 부르는 黑色을 나타내었는데, 身